

강원일보(<http://www.kwnews.co.kr>) 2021년 8월 9일 기사입니다.

이재명 “2024강원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적극 지원”



춘천서 기자간담회 열고 평화특별자치도 등 현안 해결 강조
원주 의료기기 현장도 방문 신산업 발전 잠재력 높이 평가
태백에서 광부 지낸 아버지·형 언급 “푸근한 고향 같은 곳”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원도 민심 잡기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4청소년올림픽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남북의 냉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모든 면에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공동 논의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원도가 추진 중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 춘천~철원·영월~삼척 고속도로 개설,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 조성 등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는 각종 규제로 개발과 성장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형평성보다는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와의 특별한 인연도 소개했다. 태백 장성에서 광부를 지낸 아버지·큰형의 삶을 소개하면서 “태백에 거주하고 있는 큰형님 덕분에 강원도에 자주 왔다. 특히 계곡 바위 위에서 돌구이 방식으로 삼겹살을 구워 먹은 기억이 있다”며 “강원도는 푸근한 고향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지사는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동해안권의 액화수소 융복합클러스터, 원주권의 의료기기산업 등 강원도의 신성장을 위한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동안 희생으로 발전이 더뎠던 강원도는 신산업 발전에 대한 잠재력이 크다”며 “미래 에너지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춘천 방문에 앞서 이 지사는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찾아 원주의료기기산업 현황을 보고받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강원열린캠프 최윤 상임본부장을 비롯해 전흥우·김성규 강원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 심은섭 대동세상연구회 강원대표, 김우영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기석 강원대 교수 등 20여명의 공동본부장이 이 지사와 함께했다. 이동기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장과 공보실장 조형연, 상황실장 김준섭 의원, 원태경·김혁동·허소영·김정중·김형원·박인균·정유선 도의원, 박재균 춘천시의원 등 지방의원과 함께 도내 곳곳에서 지지자들이 모여 이 지사에게 힘을 실었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